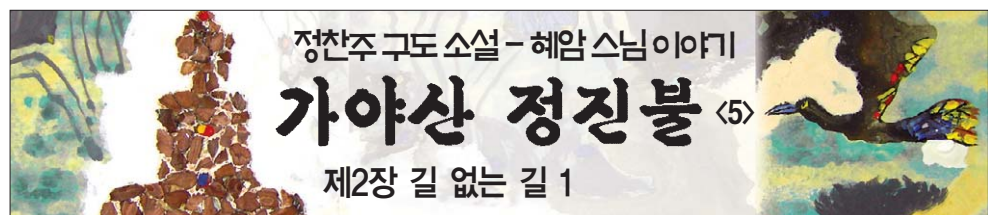


백양사 · 서원 등 찾아다니며 ‘인생행로’에 대해 고민



현각 거사는 해암 스님 속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스님의 누이동생인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외할아버지 김원태(金元泰)와 외할머니 정계선(丁桂仙)은 어린 현각에게 즐거운 둘째아들 해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지금도 현각은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어린 시절을 보낸 덕산마을을 찾아가는데, 마을 원편 대술 아래 남향으로 자리한 외갓집에는 팔순의 외숙모와 외사촌 형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촌수는 가까운 편이다. 팔순의 외숙모는 스님의 속가 형수이고, 현각이나 그의 외사촌 형은 스님의 조카인 것이다.

장성을 덕산마을은 백양사 가는 도로 초입에 있어 마을 아낙네들은 조상 때부터 백양사로 불공을 드리러 다니곤 했다. 스님이 출가 전 백양사를 오갔던 것도 그런 마을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다.

누가 보아도 덕산마을은 동과 남, 그리고 북으로 솟은 산자락으로 둘러싸여 금닭(金雞)이 알을 품고 있는 듯했고, 서쪽으로 넓게 터진 들밭은 금닭의 먹이곳간처럼 보였다. 또한 마을 어귀의 250여 년 된 느티나무 곁에는 금닭이 비상하기 위해 관망하는 솟대 같았다.

덕산마을을 다시 찾은 현각의 증언이다. “큰스님의 속가 아버지인 외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스님께서서는 장성을 성산리에 있는 외갓집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성산보통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산마을 친가에서는 일본에 가기 전 집안 사신 것입니다. 큰스님 책을 보면 덕산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기록입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 사신 집도 지금 큰스님의 형수님이 사신 집이 아니라 같은 고살길로 더 올라 가서 있는 작은 집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덕산 3리 730번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아봐서 압니다. 지금의 집은 큰스님께서 일본에서 돌아와 당시 1원 50전인가 주고 외할아버지께 사드린 집입니다.”

스님의 출가 전 이름은 김남영(金南榮)이었다. 7남매 중 차남으로 집안 형편은 풍족하지 못했다. 장성을 성산리에 있는 외가가 더 잘 살았고, 외가의 인척들 중에는 장성군의 인물들이 많은 편이었다. 남영은 외가로 가 보통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 친가는 집안 일을 거들어줘야 할 만큼 궁색했으므로 공부할 분위기가 못 났던 것이다.

그렇다고 어린 남영이 외가에서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린 남영은 외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보통학교를 다녔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외갓집 동생이나 조카를 돌보았다. 조카 중에는 서너 살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는 남영이 만을 따랐다.

“남영아, 얘기 좀 보그라잉. 니가 학교에서 오기만 가다렸당개.”

어린 남영은 아이를 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울다가도 남영을 보면 울음을 그쳤다. 남영은 아이가 울어도 절대로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아이가 왜 우는지 차분하게 살폈다. 아이의 표정을 보고는 배가 고파서 그런지 오줌이 마려워 그러는지를 알아냈다. 아이는 어른들처럼 거짓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남영은 천진한 아이를 좋아

했고, 자신도 아이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남영이 외사촌 동생이나 조카들을 돌보고 있으면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친구 중에는 악동도 있었다. 장난이 심한 악동은 아기를 건드려 울리곤 했다.

“건드리지 말아라. 왜 아기를 울리냐.”

악동이 건드려 아이를 울리면 남영은 울음을 곧 그치게 했다. 장난꾸러기 악동은 그 놀이가 재미있어 날마다 찾아와 아이를 울렸다. 남영은 악동의 장난을 단번에 그치게 할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좋은 말은 통하지 않았다. 아이를 울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사정해도 울러들을 뿐이었다.

남영은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 궁리했다. 학교 가는 길에서도 그 생각만 했고, 수업 중에도 그 생각만 했다. 집으로 돌아와 외사촌 동생이나 조카들을 돌보면서도 그 생각만 했다. 그러나 악동의 심술궂은 장난을 막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악동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아이를 울리고 나서 즐거워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다. 악동이 또 찾아와 아이를 울리려 했다. 순간, 남영은 다름이 방망이를 들어 악동의 손을 내리쳤다. 악동이 비명을 지르며 마당에 나동그라졌다. 손을 감싸 쥐며 소리쳤다.

“남영이가 날 죽이네!”

이웃집 사람들이 쫓아와 남영을 나무랐다.

“네가 한 것이냐.”

“제가 버릇을 고쳐주고자 때렸습니다. 웃는 아기를 울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입니다.”

“그렇다고 다름이 방망이로 치다니 지나친 것이 아니냐.”

“저는 수없이 좋은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단 말이나.”

“아닙니다. 저 친구는 충분히 알아들을 것입니다.”

“알아들었는데 왜 쳤느냐!”

눈일 나갔던 외갓집 식구들도 돌아와 남영을 질책했다. 작은 외삼촌이 악동의 손에서 나는 피를 보고는 말했다.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구나. 어서 사과해라.”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 친구의 손은 정신을 한번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때렸습니다.”

악동을 때리지 않고 말을 알아듣지 못한 악동의 손을 때렸다는 남영의 말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외삼촌도 더 이상 남영을 꾸짖지 않았다. 대신 손을 다친 악동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달랐다.

남영의 다름이 방망이질은 큰 효과를 냈다. 이후 악동은 아이를 건드려 울리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집으로 놀러 다니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키는 땅강아지만 하지만 다름이방망이보다 더 단단한 놈이니 니들도 조심해야 된다.”

남영이 약하게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강골의 기질인 것은 사실이었다. 방학이 돼 아버지를 도우러 가면 식구들이 긴장했다. 아버지가 남영을 어려워할 때도 있었다. 마당가에 핀 꽃을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꺾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남영이 선한 사람은 꽃을 꺾지 않는다고 언짢아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방안에 머리카락 한 울 그대로 놔두는 법이 없었다. 남영이 신는 고무신도 항상 마루 밑에 가지런하게 놓였고, 휴한 점 묻어 있지 않았다.



그림 · 최문정

속세 조카 현각 거사 큰스님 어린시절 증언

“외유내강형에 잠 적고 반듯한 것 좋아해”

남영이 밝고 다니는 마을의 고살길도 마찬가지로였다.

눈이 내려 쌓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주변부터 시작해서 마을 앞 빨래터, 실개천을 따라 난 고살길까지 살살이 걸었다. 천성적으로 잠이 적고 반듯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남영은 성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행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했다. 장성군에 소재한 서원을 찾아다니며 그곳의 유생들에게 한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며칠씩 머무르며 익히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로 장성군에는 여러 서원이 산재했다. 읍에는 변씨(邊氏) 조상들을 배향하는 봉암서원(鳳巖書院)이 있고, 김인후를 배향하는 황룡문의 필암서원(筆巖書院), 김은을 배향하는 진원문의 학림서원(鶴林書院)과 기정진을 배향하는 고산서원(高山書院) 등이 있었다. 서원에 가면 서원 문답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서원지가 있고, 향교를 출입하는 유생들이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양사도 남영이 자신의 심란한 마음을 달래는 곳 중의 하나였다. 남영은 백양사를 가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려왔다. 백양사에는 큰스님으로 불리는 만암(漫庵)선사가 있었다. 특히 백양사 초입에 자리한 정류암에는 만암선사가 암자 극락전에 광성익숙(廣成翼熟)을 설립해 50여 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었다.

정류암의 웅담샘 물맛은 말 그대로 감로수였다. 백양사 스님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녹두장군 전봉준이 관군에 붙잡히기 전날 밤을 정류암에서 묵었는데, 그때 전봉준이 돌샘의 이름을 ‘남천감로(南泉甘露)’라고 짓고 부지깽이로 썼다고 하니 전봉준도 탐스럽게 마신 물맛인 셈이었다.

백양사는 다른 절과 사뭇 달랐다. 만암 선사의 엄한 지시 때문이었다. 선방 수좌들에게도 조석예불에 반드시 참여한 뒤 선방에 들도록 했으며, 새벽에만 하는 도량석도 스님들끼리 돌아가며 저녁까지 계속하도록 했다. 그래서인지 백양사는 종일 얼얼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내에는 어디를 가나 양봉으로 키우는 벌들이 웅웅 소리 내며 날아다녔다. 사미승들도 일벌처럼 쉬

지 않았다. 종일 짚신을 엮거나 대나무를 깎아서 대바구니 같은 죽기(竹器)를 만들어 장돌뱅이들이 오면 팔기도 하고, 중창불사에 동참한 신도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남영은 출가의 마음이 나지 않았다. 백양사 스님들에게 빌려 읽는 <금강경> 등이 마음에 와 닿지는 하지만 같음이 깊었다. 그래서 남영은 외갓집이 있는 읍내로 나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왜간장공장을 드나들기도 했다.

일본인 사장은 남영의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을 좋아했다. 팔만 좋아한다면 사위로 삼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남영은 일본이 얼마만큼 개화한 나라인지 일본인 사장을 통해 알았다. 조선과 달리 돈을 벌 수 있는 직장도 많고, 돈을 벌어 공부할 수 있는 전문학교가 많은 나라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는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전보다 더욱 고민했다.

현각은 외할아버지에게 들은 얘기에 또 흥얼거린 바 있는데, 남영이 왜 일본으로 갔는지 그 이유는 불분명했다.

“큰스님께서서는 17세에 일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뒤이어 큰스님 속가 동생인 태호 스님도 가셨으니 태호 스님이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외갓집 형편상 유학을 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돈도 벌고 고학을 하기 위해 갔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큰스님 얘기는 26세 때 해방 후 귀국하고 나서부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큰스님이 외할아버지께 집을 사준 얘기와 큰스님을 결혼시키려고 한 얘기를 소상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중정 해암 대종사의 전기에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돌 아닌 돌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응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응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마음을 깨달으면
걸림이 없으므로 진흙에
들어가서도 물들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으므로 가는 곳마다
반야 아님이 없고 임하는 곳마다
진실 아님이 없습니다.”

- 해암 대종사 법어